

# 광주 온 안철수 “야당은 항상 연대 통해 집권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국 순회 두 번째 일정에 나섰다.

광주는 야권의 ‘심장부’이자 지난 대선서 ‘안풍(安風)’의 진원지였던 만큼 안 의원이 정치 세력화를 위해 반드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안 의원의 이번 호남 방문은 야당 텃밭인 호남의 적자 자리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 상인간담회, 전주 남부시장 방문, 광주은행 본점 방문, 광주지역 기자간담회, 시민네트워킹 ‘무등’ 창립식, 재야·시민사회 원로그룹과의 만남 등 이날만 7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광주에서 1박을 한 뒤 오는 18일 새벽 광주 지역 환경미화원과 만나고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이날 안 의원은 호남 강행군을 통해 자신의 탈당 배경과 이유, 정치 세력화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며 호남 민심을 의식한 듯 ‘야권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탈당선언 이후 처음으로 전주에 이어 이날 광주를 방문한 안 의원은 광주시외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은 독자적으로 집권한 적이 없다. 항상 연대를 통해 집권했다”면서 “절대로 혼자서 집권 못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과 JP(김종필)의 연대,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로 정권을 창출했고 저와 문재인 후보가 연대해서 박빙의 승부까지 갔다”면서 “새정연은 지금 현재 네가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어 “(탈당 이후)무당층이 야권지지자로 돌아섰다”면서 “새로운 지평,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빠른 시간 내에 미래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총선 목표는 개헌 저지선 확보”

“朴대통령 삼권분립 개념 없어”

‘안풍’ 진원지서 본격 열거집

전주~광주 7개 일정 강행군

결단과 선택, 희생과 헌신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믿어주시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날선 공격도 했다. 안 의원은 “삼권분립 개념자체가 없는 대통령이다.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쫓아내고 국회에 입법권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21세기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70년대 처럼 국가 개조를 하는 것이다”며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안 의원은 20대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정권교체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총선 제 1목표는 새누리당의 개헌 저지선 확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앞으로 함께할 분들의 3대 원칙으로 부패하거나 막말하거나 갑질하는 사람은 안되며 돈과 힘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수구 보수, 2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의 이번 방문 기간 호남에서 본격적으로 세력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안 의원이 창립식에 참석하는 시민네트워킹 ‘무등’은 지역 정치혁신을 선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실사구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모임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 측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안 의원의 독자 세력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전주와 광주 방문을 마친 뒤 그동안의 구상을 토대로 다음 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세력화의 기초를 첫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대전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재개한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광주순행을 방문, 통장을 개설한 뒤 은행 원더랜드를 찾은 어린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첫 광주방문에 나선 안 의원은 이날 “낯은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정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야권 지각변동...한치 앞 안보이는 총선지형 어디로 가나...고민 깊어지는 호남 지방의원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전·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적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정치판이 ‘일어다야’(一興多野) 구도로 바뀐데다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 호남발 신당 돌풍설 등이 나오면서 총선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되면서다.

중앙 정치에 예측된 지방정치의 현실 탓에 광역·기초의원 역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되느냐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 때 공천 여부가 결정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17일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역·기초의원 숫자는 각각 22명과 67명으로 총 89명이다. 다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들은 최근 들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총선 판세가 안갯속으로 변하면서 어느 당·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놓고 이들 광역·기초의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역구 현역 의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겠지만, 총선 직전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판세로 흐름 가능성이 커 선택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구의원은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 판세가 어찌될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낭패”라면서 “예전 같으면 새정치연합 공천 받으려고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지금은 당적 말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말했다.

일부 기초의원들은 예비후보보다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공천을 받아오는 후보를 지원하기로 하고 둘러보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역 의원의 공천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한 구의원은 다른 예비후보를 지원하면서 현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당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 지역구의 광역·기초의원들은 예비후보들이 있던 지원요청을 뿌리치고 현역 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변에선 예전과 달리 현역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과거 지방의원 줄세우기 관행이 역전된 모습이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인 A씨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으려고 지방의원 여러 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있고 간혹 만나더라도 지원 약속이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탈라진 지방의원의 입지를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金 45.8% vs 文 42.0% - 金 42.2% vs 安 41.4%

## 문재인·안철수 누가 붙어도 김무성과 ‘박빙’

리얼미터 대선주자 양자 여론조사

새정치민주연합을 최근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 대표와 안 의원의 대결이 각각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 김 대표는 45.8%, 문 대표는 42.0% 지지율을 기록했다. 3.8%포인트 차이로 김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이다. 그런데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양자대결에서는 김 대표 42.2%, 안 전 대표 41.4%로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김 대표에 대한 문 대표와 안 의원의 상대적 경쟁

력을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대구·경북(문재인 26.5%, 안철수 20.2%)에서 문 대표가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남(45.1%, 50.3%)에서는 안 의원이 우세했다.

수도권(47.1%, 45.6%), 대전·충청·세종(37.3%, 42.2%), 부산·경남·울산(38.4%, 38.8%)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와 두 사람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지정당별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88.6%, 61.5%)에서 문 대표가, 새누리당 지지층(4.6%, 13.1%)과 무당층(42.9%, 54.3%)에서는 안 의원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 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당신의 만원으로 영광이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클릭



### “엄마, 우리집에 언제 가요?”

유방암으로 몇번의 수술 끝에 요양중인 영광이의 할머니와 미혼모지만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광이의 엄마.

부족하지만 화목했던 영광이네는 갑작스런 화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이는 지금, 추운 겨울을 임시 거처인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 사용된 사진은 박지만 사진작가의 채능기부로 촬영하였습니다.



[영광이의 집이 지어지면 사랑이 모여서 지어진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사랑을 모아 영광이를 집으로!

1만원 기부천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061-921-4397/061-274-0041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 농협 301-0081-6148-11